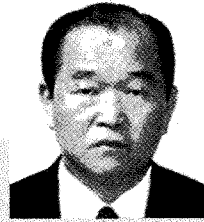


수의동종요법의 토론 (獸醫同種療法の討論)

Debate of Veterinary Homeopathy



손 봉 환

전 인천광역시가족위생시험소장
한국유질유방염연구회고문

(주) 현 세계의 수의계에서는 동물질환의 치료에서 항생제의 내성발현과 축산식품에 유해물질의 잔류 등으로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종요법의 검토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약업계에서 판매를 시도하려는 것이 보인다. 동종요법은 치료에서 새로운 방법의 모색으로 찬반의 토론이 되고 있다. 이들 내용의 몇 가지를 소개하여 수의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를 가져본다.

대한수의

I. 동종요법의 역사 (History of Homeopathy)

① 현 아이디어의 생성

현재 기본적인 연구는 희석 시킨 제품의 효과와 분자생화학의 신경생리적 그리고 면역학적 분야(neuro-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fields of molecular biochemistry) 이 양자의 단순한 분자들 까지도 증명되었다. 많은 발견들은 동종요법적인 작은 양이 사용되는 물질의 작용으로 확정되어졌다.

몇 가지 allergy성 호르몬과 비타민들은 동종요법을 좋아 하는 이들에게 비교 용량으로 사용되어졌다(작은 양의 효과).

동종요법의 원칙 몇 가지는 고대에 알려졌다. 만능

면 독성(Mithridites = 만능 해독제), 그들은 그들의 계획실패에 대하여 일당 중독의 소량을 취하는 과제에 의하여도 중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중국은 또한 아직 과학적으로 모를 때 이것의 신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강제적인 마마(small pox)의 치료는 화농기 환자의 옷 사용 또는 고통 받는 자의 코 구멍 안으로 1년 된 마른 농을 넣어주는 것 중 하나였다.

일찍이 BC 4세기에 Hippocrates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치료한다고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온도와 물리적 상태의 특성이 표현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의 잠재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었다(his lymph, blood, bile 그리고 gall).

결과적으로 그는 개체의 이화작용에 근거하여

물리적 비 정상에 대한 환자의 반응 아이디어를 확정 시키었다. 즉 그들은 억제되고 있는 질병은 다른 형태로 다시 표현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실험은 기회와 관찰에 의해 유도된 것이고, 18세기 Hahnemann의 시기까지 진정한 과학적인 것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 었다.

② 동종요법, 영감의 체계적 탄생

S. Hahnemann, 동종요법 창시자

화학에 정열적인 흥미를 가진 현명한 대학생이며, 이태리어, 불어, 영어에 유창한 지식이 있으며 Latin어 그리고 Greek어로 설명이 가능한 Samuel Hahnemann이 1779년Leipzig에서의 학공부를 마친 때는 그의 나이 겨우 24세 였다.

그 때부터 그가 34세에 도달 되었을 때 그의 과학적 연구는 이미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비 논리적이며 현혹 시키는 발견을 한 모든 것을 의학적 실험에서 중단 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끊임 없는 그의 욕망은 계속 작용되어 “치료되고 있는 환자의 믿을 수 있는 이유 = A reliable means of curing patients “를 찾는 것을 진행하였다.

그의 최초의 영감으로 그를 믿게 한 그가 번역 하고 있는 “Materia Medica “ 이라는 것이 Cullen’a book에 있다. 그것 안에서 잘못이고,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Cinchona(키나 속 꼭두서니과 Rubiaceae의 1속)의 작용에 대한 확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이 약의 효과를 발견하기 위하여 직접 실험을 하기로 결

정하였다. 여러 날 동안 Cinchona를 섭취한 후 “간헐열 = intermitted fever “의 증상을 나타내었고, 이것을 Malaria가 원인이 되어 열이 나는 것 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것은 간헐열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약제가 있는 이후 역설적인 것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 기록에서 Hahnemann은 증상과 물질 사이 첫 동종요법관계를 만든 것이다. 즉 “정상적으로 열을 치료하는 Cinchona는 건강한 개체에서 열의 모든 표현을 만든다 = Cinchona which normally cures fever creates every appearance of fever in healthy individuals...”)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체원칙의 정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치료를 유도하는 길을 따르는 첫 단계를 만든 것이 즉 “ the Law of Simillitudes = 유사 의 법칙 “이다. 이 전문가 의견은 “ 의학적 식물의 치료특성에 관한 새 원칙에 관한 논문” 안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즉 몇 가지 만성적 감염의 빠른 치료를 위하여 약제는 체내에서 가장 잘 비교될 수 있는 질병의 정상적인 원인인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이 위대한 연구자는 계속적으로 그 시기의 다른 의사들과 마찰되었으나 규칙적으로 그 자신에게 실험 하였고, 그의 환자에게 약제를 사용한다. 치료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그 시대에 응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실험과 오류가 있는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꾸준히 그의 기술은 새롭게 되고 있었다.

Hahnemann은 여러 가지 물질과 그의 생산능력 또는 질병에 관계된 치료의 직간접 효과를 가지고 환자들의 병을 비교한다.

결국 우리가 현재 동종요법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는 같은 증상을 발현할 수 있는 약제의 고 용량인 Hellebore(미나리 아제비과 식물 크리스마스 = 살충제 = 그 뿌리와 줄기가루)로 환자를 치료하였을 때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질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다. 즉 그는 적은 용량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 잘 증명될 수 있도록 “인공적 질환 “ 자극을 환자에게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용량에서 이를 확인하여 작은 용량의 실행이 탄생된 것이다. 이것으로 유사의 법칙에 근거하여 동종요법의 제2 중요원칙이 만들어 진 것이다.

Cinchona의 경우와 같이 여기서 다시 일반적 원칙의 진행을 통한 정의를 위하고 단계의 확정을 위한 배분을 시켜서 실험적 발견이 된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제3의 동종요법성격이 주장되었다. 이 사실이 기본적 실험의 치료 체계이다. 물질과 다른 질병과 관계된 현상의 하나에서 자체조사방법의 응용에 의하여 약물과 증상의 확대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의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실에 Hahnemann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제로 그와 계속적인 접촉과 특별환자에 대한 알맞은 물질의 계속적 연구가 보장된 것이다. 그리고 환자, 의사 상관관계의 새로운 종류가 이루어졌다. 이 중요성이 현재 우리에게는 다만 감각의 시작으로 있는 것이다.

잠재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의 병 발생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요점에 있는 것과 같은 임상발

현에 근거하지 않은 실행의 현실적 장점이 있었다. 병리학적 현상은 환자의 전 개성이 포함된 것에 굳은 심리적 또는 체력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수용된다. 약제와 질병 사이 증상의 인식과 상관관계를 통하여 환자개성의 모든 현상은 치료과정 안에서 계산되고 있다.

II. 원칙

① 유사(類似)의 법칙(法則) (The Law of Simillitudes)

“The law Similia Similibus Curentur ?’ let like be cured by like’ -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하여 치료된다. “치료학적 치료의 그 외 모든 종류에서 동종요법이 구별된다. 이것은 모든 동종요법의 수용, 실험 그리고 약제준비의 기초로 형성된다.

이 법칙은 1810년에 Hahnemann이 발간한 “Organon of the Art of Healing = 치료기술의 원칙“ 이라는 것에 설명되었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어떤 질병치료에 영향이 있는 것은 오로지 확실성, 신속 그리고 영원한 방법은 질병이 치료되기 위하여 이들에게 비슷한 건강 개체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약제사용에 의존된다.”

② 발 병학 (병인론= Pathogenesis)

그렇기 때문에 동종요법약제의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 광물 그리고 동물성 물질들은 질병을 치료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에

개 비슷한 증상의 창조능력이 있는 것들이다. Hahnemann은 이것은 병리-유전적 성질 (patho-genetic property) 또는 원인이 되고 있는 질병의 성질(Property of causing disease)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떤 병리 - 유전적 물질의 치료적 장점은 건강의 안전상태에 있는 두 가지성(sexes)의 개체에서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군에서 증명하였다.

이 방법은 각 과제의 특히 체력적이며, 심리적 반응에 종합되어 지는 물질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병리-유전적 프로필의 능력이다.

Hahnemann에 의하여 선택된 물질의 항목과 설명은 같은 시험방법을 사용할 때, 그의 성공자들이 확대되는 것에서 “Homeopathic Materia Medical = 동종요법의학 물질”이라는 것의 편집 시작점이었다.

한 예를 선택한다면은 개가 위장염이 있으면 물을 소량 마시거나 자주 토한다. 동물은 방사체(radiator)에 의하여 난잡해 진다. 이것은 홀로 있는 것을 유지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때때로 전체적으로 엎드려 있으며 광폭한 움직임이 뒤 따른다. 이 동물은 동종요법 처방인 Arsenicum Album 시술에 의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 개의 증상적인 표(symptomatological table)는 건강개체 비소중독의 영향과 비슷하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동물의 전체 생리학 적 연구가 요구된다(행태포함). 순수한 물리적 증상만 아니라 동종요법치료의 목적은 질병에 저항을 위한 기관의 능력회복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외과 의사는 동종요법 또는 cortico 치료에 의한 피부병의 치료는 두 가지 다른 접

근이 포함된다. 병든 개가 같은 동물이라면은 두 가지 치료의 결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한 경우 성공은(cortcoids) 증상제거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빈도로 다시 나타나서 수의사는 실패한다. 다른 경우는 동종요법 약제가 발견되고 정확히 시술 되었을 때 만일 확실한 자료가 성취되지 않는다 하여도 재발은 긴 간격으로 증가되면서 최소로 생길 것이다.

③ 최소희석 (Minute Dilutions)

물질의 치료적 효과는 병리적 성질에서 오는 결과로 성립되었으나 거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이 물질의 어느 용량을 시술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다시 원리에 주어진 답은 문리법칙의 힘이 갖는다. 즉 동종요법을 위하여는 “의학적 물질은 희석의 미세정도를 위하여 감소되어야 하고 알맞은 성공에서는 부수어지는 것으로 역동화 되어 진다.”

우리는 Hahnemann이 확실한 기간과 환자로 통이 마지막이 되도록 효과를 가지는 환자에서 “인위적 질병” 발생을 피하기 위한 소량의 시술 적용을 빠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소량의 시술은 장래를 위하여 연계되었다. 단지 그들은 개발능력이 있다. 즉 “그들의 원래상태에서 나타나지 않고 남아있는 의학적 물질의 믿을 수 없는 가능성 있는 약효에 대한 것”이다.

미세희석의 원리는 원칙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제로 변화 없이 남아있다. 오늘은 준비과정으로 산업화 되었다.

Hahnemann은 알코올 99방울과 같은 것이 포함된 후라스크(flask) 내에 모체팅크체(mother tinctur = 식물 또는 동물성에서 생산한 것) 한 방울을 부어서 첫 약효 또는 희석을 얻었다. 약은 약 100번 후라스크를 흔들어 역동화 시키었다. 제2의 희석을 얻기 위하여 또 알코올 99방울이 든 다른 후라스크 안에 섞은 한 방울을 넣었다. 그리고 새로 섞은 것을 회전 시켜 역동화 시키었다.

각 희석 액은 자체 앞의 것의 1백분의 1이다. 그리고 자체의 범위에 근거하여 첫 표기, 4번 또는 30번째의 100분 법 분쇄였다. 이 과정이 동정요법희석에 주어진 이름의 근원이다. 즉 Hahnemann의 백분 법 용량(C-CH-X-XH).

요약하면 동정요법의 기본원리는 유사의 법칙에 근거된 역의 실행이다. 미세희석과 성공적 역동화를 위하여 그들이 치료되는 약제 내에 확실한 증상의 생산능력이 있는 물질인 것이다. 의약품의 준비는 제1차로 중요하게 보였다. 즉 물질의 직접변화는 단계이고 자체의 작용은 병리적 상태에서 치료적 상태로 운반되는 것이다.

Ⅲ. 수의사를 위한 동정요법의 장점 (The Advantages of Homeopathy for the Veterinary Surgeon)

① 동물과 자체환경에 관계되는 의약품

최고와 동등한 동정요법 실험적 치료는 “개체환자” 질병에 맞추는 약제의 영원한 조절이 기초가 된다. 물리적 질환(disorder)을 통하여 공격하는 세균의 한 부분에 저항이 반영된다.

그들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산발적, 역학적 또는 때로는 만성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위치, 일기상태와 성격과 미각이 포함된 환자의 체질과 강인성까지 그러한 것들이 관리될 수 없는 외부적 인자상태에 의거하여 종종 다르다.

Hahnemann 이후 23년에 동물에서 그의 독특한 것의 응용이 자세히 설명된다. 비저(glanders)와 싸움을 한 동정요법의 어떤 지식도 없는 Leipzig의 의사 Lux이다. 그는 이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 코 점막의 분비물 한 방울의 30e CH 희석을 1831년에 만드는 아이디어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환 축에 주었다. 비슷하게 그는 희석 액의 한 방울을 성공적으로 시술하였다. 그리고 30번 역동화 시키었다. 이것이 ISOPATHY(질병의 생산품으로 질병의 치료)의 발명인 것이다.

그 뒤 의사 Han Rabe는 Lachesis 7CH와 pyrogenium(발열성 물질) 7과 9CH의 소량으로 소에서 전염성 유산의 역학이 해결된다. 그리고 말의 Botulism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

② 동정요법과 사육자 (Homeopathy and Breeder)

사육자는 자연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질병의 자연적 근원에 대하여 모두 알고있다. 갑자기 일기(비, 바람, 온도의 상승과 저하)가 변한다. 그리고 사료 등의 종류와 양이 변한다.

이들 모든 사건들은 매일 일상적인 동안에 표현된다. 매일의 언어, 그들은 건강개체에서 만들어 지는 실험의 반영 때문에 동정요법원리가

가지는 라인 내에 완전히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바람 또는 비가 잘 오는 동안에 증상들의 일반적 약화, 술 마신 후 위 통증, 술 마신 후 기침의 감소, 이 방법 안에서 수의사와 축 주는 같은 언어를 늘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동물 또는 그 자체의 질병을 설명하기 위하여 같은 말을 사용한다. 정보의 기교와 풍부함은 축 주와 수의사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오기 위하여 동종요법 전 근원을 돌보는데 영향이 있다. 동종 요법적 임상조사는 환자의 진단에서 방해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계산한다. 약을 설명할 때 질병의 기본적 바탕 또는 발작적 원인과 치료대상 동물 군의 특징이 된다. 그리고 수의사는 환 축의 특별증상을 추적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개에서 고기 또는 송아지에서 우유의 식욕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습관적인 증상이다. 일상적이고 특별하거나 개체적이다. 그러나 정상상태의 이들 증상이 없는 것은 잘못된 건강에서 요점이 된다.

제연구는 때때로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 결점은 곧 좋은 상태로 전환된다. 진찰을 하는 동안 동종요법 수의사는 그가 앞으로 치료를 위하여 방문할 때 진단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동물개체 또는 군의 전반적인 인상을 얻는다. 그의 접근은 그래서 많은 전망을 한다. 이것은 축 주와 협동하는 동안에 군에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으로 특별문제의 제거로 대체된다.

인프렌자로 고통 받는 여러 백 마리 돼지가 있을 때 개체들을 하나 하나로 치료하기는 확실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군의 개체에 대하여

접근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은 군의 접근이 보장된 전반적 동종요법 적용에서는 완전히 수용된다. 그러나 환경, 사양, 유전 그리고 번식기술 같은 인자들은 병리학적 근원에서 우세한 위치가 종종 된다.

③ 동종요법과 애완동물 (Homeopathy and Pets)

질병의 모든 현상을 계산 하는데 동종요법방법은 처방에서 애완동물의 상태와 이것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좋다.

애완동물 주인은 자기 동반동물을 대단히 좋아하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애완동물 상태가 어떤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의사를 환영한다. 동반동물 주인은 동종요법 수의사가 그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학처방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요인을 알 때는 그들의 동반동물의 행태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결막염과 비염 또는 코감기(Coryza)는 전염성 비기관염(infectious rhino-tracheitis)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양이는 일반적이다. 따뜻하고 동반자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잘못 다루거나 때리면은 친함이 거부된다. 옆에 있는 동안에 식욕증가가 동반되는 것은 이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결과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사람은 두 마리 고양이는 코감기의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노란 비자극적 분비물 배출은 신선한 공기에 노출 시 개선된다. 그러나 마시는 것은 거부한다. 발열기에 가깝게 앉아 있고

의출을 싫어한다. 그리고 귀양이 생기고 물만 먹는다. 거기에서 같은 진단이 되었어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론은 만일 코감기가 걸렸다면은 돌보아야 할 것은 재채기 하고 있는 다른 두 마리를 회복 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 동물은 특별한 건으로 치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더욱이 동물은 일반상태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 자체가 병리적 현상이다.

현재부터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수의사와 동물주인 사이 대화의 향상이 주어져야 한다. 동종요법 수의사는 그의 단골과 같이 매일 같은 언어로 이야기 하게 되면은 회화로 오는 장점이 더욱 있을 것이다.

IV. 수의사에서 동종요법의 공헌과 장래

수의사는 질병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술을 변경 할 의무가 있다. 그들 자신의 필요성에서 발견된다.

- 동물에 상처 없이 알맞은 생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좋은 건강을 동물에 유지 시킨다.
 - 건강의 평형상태를 회복 시키는 알맞은 치료법을 사용한다.
 - 특히 전염성인 경우에는 예방작업을 취한다.
- 현재 의학적 치료의 이 형태는 수의사 치료기술의 범위와 동종요법 필요성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종 요법적 치료는 동물 또는 군에 적용되는

약제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유전, 생활형태, 환경, 특이한 습관, 역사성과 그 외 가능성 있는 관계인자들을 포함 시킨 모든 관계수치의 계산을 함께 넣어서 시술한다.

더 나아가서 용량은 미세한 소량인 때문에 동종요법약제는 완전히 독성에서 자유롭다.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소비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알맞은 것이 우유와 고기 이 두 가지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생활을 위한 일에 공헌이 되어지고 동종요법에 의하여 영향이 주어지는 생활유지균형은 식품생산체제에서 탐인 농부와 수의사 작업이 기본적 과제이다.

내성(저항)과 관용은 용량시술에서 빈도가 증가하고 시작 시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와 동종요법약제에서 변화는 그들의 신뢰와 치료 효과 때문에 확인되어진다.

두 세기 이상 동안 유사의 법칙 "Let like be cured by like =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치료 시킨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치료되어 왔다. 확인되는 결과는 확인되는 시나리오형태로 언어 질 것이다. 앞으로 더욱이 동종요법치료는 무독성이고 제2의 영향은 없다.

(주). 다음은 Susan G. Wynn이 JAVMA, Vol 212, No. 5, match 1, 1998: 719 ~ 724에 "Studies on use of homeopathy in animals" 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과 이 기사에 대하여 토론된 JAVMA, Vol 212, No.9, May 1, 1998: 1367 ~ 1369 것의 내용(Homeopathy article induces debate와 The author responds)을 소개한다.